

취 임 사

시대적 변화가 가져온 술한 고민거리가 치과계에도 예외는 아닌듯 치과기계 가격상등 및 개업가의 불황은 무엇인가 새로운 사업계획관을 가져오게 하는 현실적인 듯 합니다. 본인을 2천여 회원을 위해 치협이 중책을 맡아 일을 하도록 지난 제23차 대의원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의 처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2천여 전회원의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한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능



〈회장 김 동 순 박사〉

동적으로 솔선수범하는 데서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은 오로지 전체회원이 단결하여 하나의 뜻을 이룰때 모든 일을 순조로이 진행되어 나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본인은 새로운 사업추진에 있어 내적외적 충실을 기할 것이며 이미 의료전문지를 통해 치과계의 당면문제로 다룬바 있는 모든것을 회장에 당선되고 보니 하나하나씩 실천에 옮겨 보겠습니다. 회관중축, 회원보수 교육, 학회육성, 치과기계 수급문제는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보겠고 기타 의료보험, 치과의사의 해외진출, 치과기공소문제 등은 관계 당국과 협의하여 심사숙고하여 처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회원을 위한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회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업에 반영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여 가보도록 노력하여 보겠습니다.

언행일치란 글귀의 노예가 되어 실책을 갖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행동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으로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박하고 미천한 본인을 회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2천여 회원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빌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에 취임사에 대하여 고자 합니다.

1974年 4月 30日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 동 순